

MIND THE ARTIST

October, 2020 | 권민지 에디터

page 1 of 2



MIND THE ARTIST

때로 무용하고 사소한 생각이 예술가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예술가는 어떤 몽상과 사색을 즐길까? 어떤 일상적 사건이 예술의 영감이 되는 걸까?
6명의 아티스트와 나는 흥미롭고 사적인 선문답.

이반 나바로 Iván Navarro

형광등, 네온, 그러니까 빛을 사용한 이반 나바로 의 작품 너머엔 날카로운 사회·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전으로 대중을 제어했던 칠레의 군부독재정권하에서 자란 그에게 빛은 어두운 과거이자 자유와 희망의 상징이다.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무엇인가? 사옌(Sayen), 딸의 이름이다. 칠레 남부 지방 원주민인 마푸체(mapuche)족의 언어에서 따왔다. 의미는 달콤함 그리고 친절함.

가장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코로나19 전에는 비행기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점이 꽤 마음에 든다.

사적인 사치라고 할만한 것은? 바이닐을 수집한다. 이제까지 2

천 장 정도를 모았고 '우에소 레코드(www.hueso-records.com)'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반을 레코드로 제작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벌써 50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당신과 가장 닮았다고 느끼는 역사적 인물을 꼽자면? 아마도 칠레의 포크 뮤지션인 빅토르 하리(Victor Jara).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정권 초반에 살해된 민중음악가다. 갤러리현대에서 열렸던 개인전 타이틀 역시 그의 노래 가사에서 빌려온 것이다. "The moon in the water".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교육.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더 교육받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최근 특별히 관심이 가는 주제가 있나? 별자리를 가지고 작업 중이다.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려는 방법이나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매료돼 있다.

문성식 Moon Sungsic

삶과 자연의 면면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태연하게 포착한다. 언뜻 보면 낭만적인 시어 같은 문성식의 그림 속엔 평범하고도 드라마틱한 현실이 있다. 잔잔한 숲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생존게임, 생로병사 같은 거시적인 풍경을 미시적으로 그려내는 리얼리스트.

이름 앞에 들어갈 만한 수식어로 가장 마음에 드는 형용사를 꼽는다면? 솔직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이성복의 <무한화서>, 시집을 좋아한다. 이것저것 조금씩 읽거나 문득 좋아하는 시를 찾아 다시 읽을 때도 있다. 시어들이 영감을 줄 때가 많다.

가장 좋아하는 소설 속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 자유롭고 거침없는 성격, 거시적 세계관이 부럽고 닮고 싶다.

생존한 사람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설치미술가 김범 작가.

완벽한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언제, 무엇을 해야 행복하지 알고 살아가는 상태.

그렇다면 가장 깊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왜 힘든지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

관대히 용서할 수 있는 실수는 어떤 종류의 일인가? 대부분의 실수에 관대한 편이다. 실수는 실수이고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 혹은 무엇이 되고 싶나? 산속에 있는 큰 바위. 무시하고 평온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서.

2020년, 더 이상 '모던'하지 않은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를테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소비라거나 차고 넘치는 컬래버레이션 같은 것들. 모던하고자 애쓰는 행동들 대부분. 자의식 과잉의 결과처럼 보인다. 반대로 본인의 뜻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태도나 행위가 가장 모던한 것 아닐까 싶다.

당신의 삶이나 모습을 비주얼화한다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요즘 작업 중인 '그저 그런 풍경' 시리즈. 마색 유화 바탕을 연필로 긁어 그린 것인데, 우리 주변의 사건과 일상을 담고 있다. 그렇게 그저 그런 풍경, 비범함과 별볼일 없음이 교차한다는 점이 내 삶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것 같다.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미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자유로움, 용기, 집요함, 관대함.

예술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신비로운 마법이고 생존을 위한 도구이자 나와 의 싸움이기도 하다. 때로는 너무 버겁고 때로는 나를 무한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